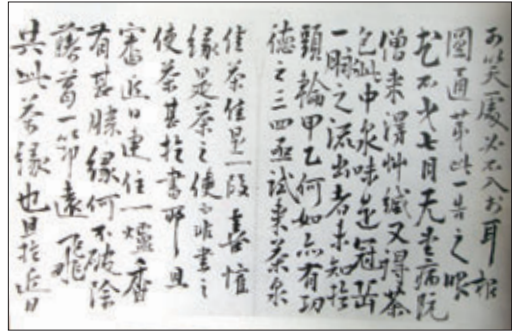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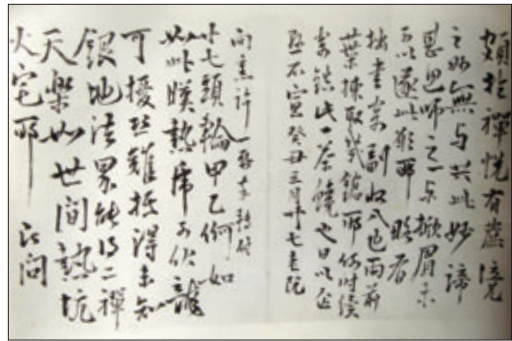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선열의 경계 함께 하고픈데...

진종(眞宗) 조례론(桃禮論)의 발설자로 지목된 추사는 제주에서 해배된 지 겨우 3년 만인 1851년 7월 다시 북청으로 유배된다. 기구했던 그의 말년은 1852년 8월 북청에서 해배된 후, 이 해 10월 9일, 과천의 초당에 당도한 뒤에야 안정된 듯 한데, 그의 한가로운 일상의 흔적은 <완당전집> <여초의> 36신에 잘 드러난다. 특히 초의가 보낸 차를 즐기며, 좋은 샘물을 발굴한 즐거움을 초의와 함께 하기를 고대했던 그였지만 그의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샘물의 갑을(甲乙)을 논하고자 했던 초의와의 해후는 결국 그가 죽은 후, 그의 상청(喪廳)에서 이루어진 셈이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 하겠다. 한편 <여초의> 36신은 일부 글자가 결락되고, 편지를 쓴 연대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다가 우연히 추사 편지의 연배를 위해 자료를 수습하던 중, 응송스님의 연구 자료였던 추사 편지 첩의 사진판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따라서 이 편지는 두 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사의 한가로운 일상이 잘 드러난 <완당전집> <여초의> 36신.

스님이 편지와 차포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곳(과천)의 샘물 맛이 좋는데, 관악산 절기에서 솟아난 것입니다. 두류산 물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공덕이 세 네 가지 있는 듯합니다. 급히 보낸 차로 시험해 보니 물맛도 좋고, 차 또한 좋았습니다. 이는 일단의 기쁜 인연입니다. 이는 차가 그런 것이고 편지가 그런 것은 아니니 차가 편지보다 나은 것인가요. 또 근일에는 일로향실에서 쪽 머슴과 있더니 너무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인지요. 어찌 같음을 깨고 멀리 이곳에 와서 차의 인연을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또 근일에는 선열에 대해 달콤한 경계의 묘가 있는데, 이 묘제를 함께 할 수 없으니 그대와 한번 진지

하게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 소원을 들어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853년 2월 27일(僧來得草菴又得茶包 此中泉味是冠岳一之流出者 未知於頭輪甲乙何如 亦有功德之三四 賦來茶 泉佳茶佳 是一段喜緣 是茶之使而非書之使 茶甚於書耶 且審近日連住一爐香 有甚勝緣 何不破除藤葛一節 逸飛共此茶緣也 且於近日頗於禪境有蔗境之妙 無與共此妙諦 甚思師之一與眉 未知以遂此願耶 略有拙書寄副收入也 兩前葉揀取幾 何時續寄鎖此茶鏡也 日於企懸不宣 向薰許一紙幸轉付 癸丑 二月二七日)

인편으로 보낸 초의의 차와 편지는 1853년 2월 경 추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짐작된다. 추사는 그 기쁨을 한껏 드러내 초의에게 답신을 썼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1853년 2월 27일의 일이다. 그의 삶이 한결 여유롭던 과천 시절, 초의의 편지와 차는 그의 속진(俗塵)을 정화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그의 여유는 관악산 절기에서 솟은 샘물을 찾아 “두류산 물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의 공덕이 세 네 가지 있는 듯” 하다는 것에서도 엿 볼 수 있고, 이어 초의가 보낸 차로 급히 시험해 보니 “물맛도 좋고, 차 또한 좋았다”는 속내에서도 드러난다. 차물의 중요성을 이해했던 그는 <혜산철명(惠山 茗)>에서 “세상에서 둘째가는 혜산천(天下第二泉)을, 또 진소현과 홍치존이 함께 마셨지(又重之秦洪), 이런 샘물은 다시 마실 수 있겠지만(飲泉猶可得), 두 선비는 참으로 만나기 어려웠다(二妙真難同)”라고 노래했다. 처음으로 혜산의 물을 알아 본 이는 당(唐)나라 육우였다. 후일 이 물은 천하의 명천으로 회자되었다. 청대의 진소현(秦小峴)과 홍치존(洪稚存) 또한 이 물맛을 알아본 사람들이었다. 차를 알고 차물을 알아본 무석(無錫) 출신 진소현은 청대의 진영(秦嶺)이다. 무석은 혜산천이 나는 곳이다. 한편 추사는 근일에 선열에 대해 “달콤한 경계의 묘가 있는데, 이 묘제를 함께 할 수 없으니” 자신의 벗 초의와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가 초의를 극진이 여긴 연유는 바로 차를 통한 수행의 경계를 은밀히 검증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사업실패 7개월 만행 나눔·수행 실천 계기

이매옥 (깨달음과 나눔 대표이사)

“20대 시절에는 불교가 뭔지 궁금해서 당시 살고 있던 금천구 독산동에서 2시간 반 버스를 타고 도선사 불교대학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죠. 이후 사업에 실패해 인간사에 환멸을 느끼고 떠돌며 부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다시 부처님을 찾다보니 이제는 알게 됐어요. 불교는 종교를 넘어 삶의 지혜, 진리 그 자체라는 것예요. 불법을 알면 돈 명예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고 긍정적인 삶, 미소 짓는 삶을 살게 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의 삶이죠.”

깨달음과 나눔을 통해 15년째 소외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이매옥 대표이사는 40년 불자의 길을 걸으며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12월 18일 이매옥 이사(59)를 본지 사무실에서 만났다. 수행을 통해 나누고 또 불법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담아봤다.

####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공양을 올린다

‘깨달음과 나눔’은 비영리법인단체로 매주 송파구 마천동 일대의 어르신들에게 15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반찬배달로 시작해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무료급식까지 깨달음과 나눔은 보현행을 실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반찬배달로 시작을 했어요. 인근 복지관들이 주중에는 어르신들에게 밥을 제공해 드리지만 일요일은 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요일에만 식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이 재개발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4백여 어르신들이 이곳서 식사를 했어요. 재개발 되면서 어르신들이 다른 동네로 많이 떠났죠. 어쩔 수 없이 살던 동네를 떠난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르신들이 여기에 와서 외로운 마음을 달래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과 나눔은 매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공연, 추석·설 명절 쌀 라면 떡 보시, 가을 김장 보시로 어르신들에게 나눔을 전하고 있다. ‘깨달음과 나눔’은 구청이나 여타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이사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금과 소정의 후원금 등으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조용히 일을 하다보니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다고. 그 중에서도 이웃 종교인들과의 갈등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는데 여기 음식들이 비위생적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알고 보니 이웃 종교인들의 시샘이었죠. 그래서 여러 메뉴를 접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국수, 떡, 전 등으로 통일했죠. 또 이웃 교회 사람들이 급식봉사 현장을 정반반 들고 지나다니는 사진을 찍어 자기네 교회에서 제공하는 급식이라고 홍보를 하는 웃지 못할 사연도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 불자 어르신들이 교회 급식이라고 안 오는 경우도 생겼죠.”

이제 마을 주민들은 깨달음과 나눔이 자비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불교단체의 급식이라는 것을 안다. 이 이사는 급식을 하러 오는 어르신에게 짧은 법문도 전해드리고 생활 속에서 내려놓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지혜도 알려준다고 한다.

#### 부처님을 향한 마음...절 수행, 참선공부

이 이사는 스물 여섯에 결혼해 남편을 따라 절을 다녔다. “남편은 참선 수행자였어요. 자연스럽게 남편을 따라 절에 갔는데 불교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남편에게 물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니 답답증이 났죠. 그래서 매일 남편 몰래 도선사까지 2시간 30분 버스를 타고 다니며 불교공부를 했어요. 수행도 많이 했어요. 절 수행으로 시작해 30대에는 참선이 뭔지 궁금해 참선 공부를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죠.”

이렇게 불교공부를 하니 신심이 솟았고 지극한 기도와 보시로 불자의 삶을 살아갔다. 하지만 그에게 시련이 닥쳤다.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삶은 안팎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사업을

해서 번 돈으로 절 7개월 불사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어려움이 닥치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제 몸 하나 쓸 곳이 없었어요. 세상도 부처님도 모두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때문에 그녀는 부처님께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답을 얻기 위해 그 길로 만행을 떠났다. 7개월 동안 설악산 태백산 지리산 등을 돌며 수행자들의 암자와 토굴 등 수행처를 찾아다녔고 오전 11시가 되면 무조건 108배를 했다. “무작정 걷고 또 걸었어요.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이틀에 두 끼도 먹었죠. 절을 만나면 절에서 밥을 얻어먹고 또 없으면 굶으며 걸었죠. 발뽀미 스물 다섯번 빠질 만큼의 고행을 했어요.”

그러던 중 전남 대원사에 당도하면서 그녀의 만행도 끝을 맺는다. 저녁 공양시간이 한참이나 지난 밤 8시 30분에 도착한 그녀에게 밥 한끼를 챙겨준 주지 현장 스님은 그녀에게 “나뭇가지에 바람이 걸리면 바람마저 일지 않는다”라는 한 마디를 해준다.

그녀는 이 말을 통해 좀더 자유로워지는 길은 세상으로 나아가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야 앞이었어요.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비우는 것이 참 불자라는 것어요. 또 한 절만 지어주는 것이 불사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도 불사라는 것어요.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하게 된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입니다. 동업으로 건축업을 해 수익을 얻고 이를 급식봉사에 쓰게 됐죠.” 2000년 그녀는 마천동에 자리를 잡고 인근 독거노

#### 마천동에서 노인급식 15년

#### 이웃종교인과 갈등 극복하고

#### 현재 150여 어르신 공양

#### 항마좌 수행으로 병마 극복

#### 여수 등 처지에 공부방

#### 현재 1천여 회원 함께 수행

#### 보육복지사업 공간도 마련

인에게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 2002년부터 매주 일요일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게 된 것이다. 이밖에 깨달음과 나눔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도움을 주고 있다.

#### 결과부좌 수행을 만나다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온 그녀에게 또다른 고비가 찾아온다. 그는 심장병과 디스크가 찾아온 것이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도 제가 그렇게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 걸어 갈 정도로 심각한 몸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저는 이 몸을 가지고 전국의 산을 다녔으니까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나니 제 마음도 몸이 아프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해버리면서 병이 났어요.”

이 시기에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스승을 만나게 된다. 아전수좌라 불리는 스님을 만나면서 그녀는 결과부좌(항마좌) 수행을 시작하게 된다. “스승님께서 수행을 위해 숨어 지내시기 때문에 법령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아전수좌라고 하면 수행하시는 스님 분들은 누군지 다 알거예요. 스님은 움막에서 홀로 사시며 추우나 더우나 바깥에서 결과부좌를 하고 밤을 보내시죠. 그만큼 스님은 바깥의 경계에 꼬달리지 않을 만큼 경지에 이르신 분입니다. 그 모습에 감명 받아 저도 결과부좌를 시작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있던 그녀가 만난 결과부좌 즉 향

www.shcandle.com

## 2014 신상품 삼환양초

한겨울 연꽃나비-7.4φ x 29cm  
한겨울 금나비-7.4φ x 29cm  
한겨울 108나비-7.4φ x 29cm  
달님 한겨울 연꽃나비-7.4φ x 29cm

한겨울 나비-7.4φ x 29cm  
본나라 나비-5.6φ x 27cm  
달님 나비-4.7φ x 25cm  
목각초 나비-7.5φ x 45cm  
3X6 꽃과 나비-7.4φ x 14.5cm

신제품  
한겨울 사군자 반아-7.4φ x 29cm  
3X6 사군자 반아-7.4φ x 14.5cm  
무궁화 반아 한겨울 양초-7.4φ x 29cm  
무궁화 반아 본나라 양초-5.6φ x 27cm  
무궁화 반아 달님 양초-4.7φ x 25cm (달님, 약학, 식물성)  
무궁화 반아 1호 양초-5.9φ x 18cm

국산향  
우리향, 미연향, 무향, 실목향, 인삼향, 대발향, 옥향, 백옥향, 옥향

수입향  
-와카비  
-참수일  
-후리지아  
-라일락향  
-영향향, 장단 (소바라)

신제품  
한겨울 12자-4.7φ x 25cm  
한겨울 옥동, 풍향-7.4φ x 29cm  
도자기 연꽃 소 가로 13cm 세로 17cm  
대 가로 15cm 세로 19cm  
파리핀 오일 (국내산 원재, 제조 상황양초)  
크리스탈 향향 필립PC캡초 9.5φ x 4cm(연소시간 약 12~18시간)

상담문의 031)766-0242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팩스 031)766-0233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처 : 장경분)



깨달음과 나눔 이매옥 대표이사는 송파구 마천동 일대에서 15년째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 왼쪽은 급식정면, 사진 오른쪽은 봉사하고 있는 이매옥 이사.